

다산포럼

연호로 읽는 역사: 조선과 대한제국



황 상 익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오늘은 2016년 3월 8일 화요일이다. 여기서 2016년은 물론 서기 연호(年號)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서력기원을 쓰기 시작했으며, 과거에는 또 연도를 어떻게 표시했을까?

조선은 개국 초부터 중국의 연호를 사용했다. 이성계가 태조로 즉위해서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가 탄생한 1392년을 ‘홍무 25년’이라고 표기했다. 홍무(洪武)는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 즉 홍무제의 연호로 주원장이 왕위에 오른 1368년이 홍무 원년이다. 건양(建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1896년 1월 1일(양력, 아래도 같음) 직전까지 조선의 공식적인 연도 표시는 명나라와 청나라의 연호를 따랐다.

인조는 병자호란 때인 1637년 2월 24일 삼전도에서 청나라 태종에게 항복하고 명나라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연호도 당시 명나라의 승정(承政) 대신 청나라의 승덕(崇德)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인조 사후인 효종 때 편찬된 ‘인조실록’에는 흥미로운 사실이 보인다. ‘인조실록’에는 명나라가 멸망한 1644년까지 지정 연호가 계속 쓰이고 있다. 1645년 이후에는 청나라 연호인 순치(順治)가 아니라 육십갑자(六十甲子)로 연도를 표시했다. 당시 집권세력의 속성각을 읽을 수 있는 기록이다. 비록 청나라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속으로는 결코 승복하지 않은 것이다.

수호통상조약문’에는 ‘대조선국 개국 491년, 즉 중국 광서(光緒) 8년’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조일수호조규’와 달리 청나라 연호가 병기되어 있지만 ‘대조선국 개국’이 먼저 쓰여 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신문이자 정부기관지 격인 ‘한성순보’를 보자. 1883년 10월 31일 발간된 창간호에는 ‘조선 개국 492년, 중국 광서 9년’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다 같은 해 11월 30일의 4호부터 ‘조선 개국 492년, 중국 광서 9년, 서력 1883년’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며 1884년 10월 9일의 마지막 호까지 이 형식이 유지된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서력기원이 사용된 최초의 경우로 생각된다.

조선 정부는 갑오개혁기인 1894년 7월 23일부터 ‘관보’를 발간했다. 처음에는 ‘갑오’라는 육십갑자 식으로 연도를 표시하다 7월 31일 자부터는 ‘개국 503년’으로 쓰기 시작했다.

그 뒤 일제에 의해 1907년 7월 20일 고종이 강제 퇴위하고 순종이 승계하면서 연호도 용희(隆熙)로 바뀌었다. 관보로는 8월 3일에 발간된 3835호부터 용희 연호가 쓰였다. 1896년 이래 ‘독립신문’ ‘황성신문’ 등 관·민영 신문들도 관보와 똑같

이 연도 표시를 했다. 1910년 8월 29일, 망국 당일까지 용희 연호가 사용되었지만 그 다음 날인 8월 30일부터는 일본제국 연호인 명치(明治)로 대체되었다.

대한제국 시기 나라 밖에 발간되던 신문들은 연도 표시를 어떻게 했을까? 러시아 연해주에 거주하던 교민들은 1908년 2월 26일 ‘해조신문’을 창간해서 같은 해 5월 26일까지 3개월 동안 모두 75호를 펴내었다. 이 신문은 처음에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용희 연호를 사용하다 5월 14일 발간된 66호부터는 그것과 더불어 ‘단군 개국 4241년 대한 개국 517년’이라는 표현을 병기했다. 단기(檀紀)가 쓰이기 시작한 것이다.

1909년 2월 1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교민단체인 국민회의 기관지로 창간된 ‘신한민보’는 ‘대한용희’와 서기(영문 표기)를 사용하다 같은 해 11월 10일 자부터는 용희를 버리고 대신 ‘갑국 기일’, 즉 단기를 쓰기 시작했다.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이 패망하기에 앞서, 재미 한국인들이 대한제국 황제의 연호를 폐기한 것이다. 1919년 3·1 민족운동으로 왕국이나 제국의 복구가 아니라 근대적 공화국이 탄생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던 셈이다.

기고

봄맞이 ‘해빙기 안전점검’부터



송 광 운 광주시 북구청장

벌써부터 설레기만 하다. 그런데 우리가 봄맞이를 하기 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해빙기 안전점검’이다. 해빙기는 2~4월 얼음이 녹아 풀리는 때로, 영상 영하의 큰 일교차 때문에 땅속에 스며든 물이 녹았다 얼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이 약해지게 된다. 이로 인해 절토면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증가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대비 좁은 국토면적과 많은 산악지형 탓에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집을 짓거나 도로를 만들기 위한 절개지가 불가피하고 부수적으로 축대와 옹벽도 흔하다. 그래서 절개지 낙석이나 옹벽 붕괴 등의 사고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통계연보의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8년(2007~2014년)간 해빙기 안전사고는 절개지(54%), 축대·옹벽(21%), 건설공사장(19%) 순으로 발생했으며 사상자는 건설공사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다행히 해빙기 안전사고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나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건물 붕괴,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안전 점검과 위험요소 제거가 필수적이다.

북구는 올해 해빙기 기온이 지난해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기상예보에 따라 지난 1월 중순부터 한 달간을 해빙기 사전 대비 기간으로 삼아 3개 부서 11명으로 전담 관리팀을 편성, 대형공사장과 급경사지, 노후주택 등을 대상으로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여부 ▲시설물의 구조 안전성 및 유지관리 상태 ▲급경사지 토사유출 및 붕괴 발생 여부 ▲옹벽 변형 및 배부를 발생 여부 등을 일제 조사했다.

또 지난 2월15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를 해빙기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급경사지 33곳과 미사용승인 건축물 74곳, 노후주택 6곳 등 모두 113곳을 대상으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도 록 하고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은

응급조치 후 보수·보강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고는 늘 그렇듯 ‘아차’ 하는 그 순간에 일어난다. 해빙기 안전사고도 다를 아니다. 때문에 북구와 같이 자치단체의 선제적 예방활동은 물론 각 가정에서도 해빙기간 동안 주변의 축대나 옹벽의 배부를 현상과 균열은 없는지, 담이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등 해빙기 안전에 각별히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위험요인을 발견했을 경우 가까운 소방서나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등 행정기관에 반드시 신고하는 실천 또한 절실하다.

이 봄,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길이 결코 멀리 있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해빙기’에 두드러야 할 것은 돌다리뿐만이 ‘아남’도 기억하자. 겨울과 봄 사이 또는 봄이 오는 길목에서 우리의 작은 관심과 세심한 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봄맞이를 담보할 것이다.

정촌 특·특

너는 왜 글을 쓰니?



박 누리 광주대 문예창작과 4년

그때 리포트에는 중학교 2학년 때 과제였던 시를 써 선생님들께 칭찬을 들었고, 그것을 계기로 백일장에 나가 몇 번 상을 받게 됐다. 그 상장을 들고 집에 돌아가 엄마의 칭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기뻐 기뻐가 있으면 글을 썼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내가 쓴 글을 읽고 누군가가 웃고, 공감하는 것이 좋아서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다.

글을 쓰게 된 계기는 거저서 없는 사실이었다. 내가 글을 쓰고 있는 것은 우연과 우연의 이어짐 때문인지도 모른다. 특별히 잘하는 것 없던, 지극히 평범했던 내가 글을 썼다는 이유로 갑자기 칭찬을 듣고, 주목을 받게 된다는 게 놀라웠다. 우쭐했던 것도 사실이다. 남들보다 잘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 즐거웠다.

그렇다고 문학에 새롭게 눈을 뜨게 된 것은 아니었다. 그저 기회가 생기면 글을 썼고, 우연히 몇 번의 상을 받았을 뿐이다. 만약 그때 조금 더 열심히 문학을 공부하고, 썼다면 지금의 나와는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한다. 사실 누군가 기뻐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나 내 글에 공감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면서 글을 쓴 적은 없었다. 남들보다 조금이

라도 잘 할 수 있는 것이 글쓰기였을 뿐이다.

그런 내가 문예창작과에 입학했다. 그리고 곧 현실을 마주했다. 나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 재능이 뛰어난 것도, 열정이 넘쳐 문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었다. 갑자기 어중간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두려웠다. 결국, 1학년 2학기를 겨우 마치고 휴학했다. 도망쳤다는 게 맞을 것 같다. 도망치고 나서도 마냥 편하진 않았다.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원하는 것을 구입하는 생활도 몇 개월 지나지 감흥이 사라졌다. 전공책을 들고 지나가는 대학생들을 보면서 ‘도망’을 후회를 하기 시작했다. 결국, 1년 만에 학교로 돌아왔다.

그렇다고 많이 달라진 것은 없었다. 처음 각오와 달리 점점 나태해졌고, 결국 또 어중간한 사람이 됐다. ‘졸업은 해야지’ 하는 심정으로 학교를 다녔다. 그러다가 아동문학을 접하게 됐다. 아동문학 강의의 처음 듣던 날 흥미를 느꼈다. 더 나아가 청소년문학까지 관심을 두게 됐다. 이를 계기로 아동·청소년문학 소모임을 만들게 됐고, 소모임 회장을 맡았다.

아동 문학과 청소년 문학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의 작품을 써서 고쳐가

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첫 번째 동화집을 만들었다.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뿌듯했다. 대학에 입학한 뒤 ‘해냈다’는 감정을 처음 느낀 순간이다. 불쑥 힘이 났다. 나도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자신감이 생겨났다.

올해는 학교에서 보내는 마지막 1년이다. 4학년이 됐고, 여전히 소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다. 며칠 전 교수님은 다시 “나는 왜 글을 쓰는가에 대해 다시 고민해봐. 4학년이 됐으니 조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지?”라고 말씀했다. 반가웠다. 명확한 답을 찾아낸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답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길을 잃었고, 도망쳤고, 결국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다.

내가 속에 있는 소모임은 ‘바르찬클럽’이다. ‘바르고 응골찬 글을 쓰다’라는 뜻이 좋았다. 나는 누군가에게 내가 쓴 글이 바른 글로 보이길 바란다. 그 글을 읽고 힘이 내주길 바라게 됐다. 뚜렷한 목적 없이 그저 남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일이라 글을 쓰던 때에 비하면 큰 발전이라고 본다. 나는 앞으로 누군가 “너는 왜 글을 쓰니?”라고 물어 온다면 “쓰고 싶으니까, 그게 다야”라고 말할 것이다.

社說

‘친노’ 그대로 두고 야권 통합 주장 가당한가

바야흐로 선거철이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공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공천 심사를 통한 막바지 컷 오프(후보 압축) 및 경선 지역 선정이 이뤄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총선은 야권이 분열돼 치러진다는 점에서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반면 여권에 어부지리를 안겨 주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중민 비대위 대표의 야권 통합 제안은 노정객의 시의적절한, 고도의 한 수였다라는 평가가 많다.

김 대표의 입장에서 통합이 되는 안 되면 결과에 상관없이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거에서 승리하면 자신의 공로가 되고 패배하면 통합을 거부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분열의 원인을 제공한 더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게 책임이 돌아갈게 되니 그야말로 ‘꽃놀이패’를 즐기는 모양새인 것이다.

바로 그런 때문에 김 대표의 야권 통합 제안은 산전수전 다 겪은 노회찬 책사의 꿈수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야권 분열의 원인이었던 친노 패권주의 청산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당의 분열을 노리고 특

던져 놓은 제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더민주에는 한두 명을 제외한 친노 핵심세력의 대부분이 여전히 살아 있음이 바로 이를 말해준다.

관란하게 된 것은 역시 국민의당이 다. 가가스루 최고위원과 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야권 통합을 거부하기로 한 데 이어 ‘광야에서 죽어도 좋다’며 안 대표가 강력한 어조로 이를 재확인했지만 일부에서는 술렁거리기도 했다. 전정배 공동대표·김한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등의 이견이 표출되면서 당내 균열상이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안 대표는 야권 통합은 물론 연대도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이 어렵다고 해서 최소한의 선거 연대 가능성마저 완전히 닫아 버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여야 박빙의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1여 2야’ 구도로는 야권 전체가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수도권에서라도 야권이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에 과반은 물론이고 나아가 단독 개헌 추진까지 가능한 200석을 내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강진청자사업 고가장비 먼저 날리고 있나

강진 청자의 명품화를 위해 수십억 원을 투입한 ‘청자 공동기반 구축 사업’의 부실이 심각하다.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일단 시작해 놓고 방치한 탓이다.

정부와 강진군 등은 지난 2008년부터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 내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첨단 특수장비로 도자 기술력을 높이고 전문 인력도 배치키로 했다. 여기에는 국고 41억, 군비 8억 7500만 원, 관리 운영을 맡기로 한 당국대 출연 2억 원 등 모두 55억 원이 들어갔다.

그러나 지금은 개점휴업 상태다. ‘석고 원형’과 ‘유약’ 등을 업체에 제공하느라 시한 생산동의 수익은 고작 800만 원에 불과하다. 생산동 등에 있는 68종의 장비는 대부분 가동 불능인데 단국

대 측은 예산 지원 중단과 함께 전문 인력도 축소했다.

더욱이 단국대 측은 전기료를 아낀다며 계약 전력을 100KW에서 40KW로 낮춰 필요한 기계마저 돌릴 수 없게 됐다고 한다. 또 비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바람에 업체가 이용을 꺼리는 데다 민간 가마터에서도 필요한 기계를 이용할 수 있어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가 되고 말았다. 강진군은 단국대의 관리 운영권이 끝나는 2018년이 되면 정부와 협의해 직접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태조사를 거쳐 당장이라도 운영 계획을 다시 짜 더 이상의 예산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나, 못생겼어!” “도와 드리려고 했을 뿐인데... 흠, 제가 그렇게 밋상인가요?” “아니야, 사랑해!” “아, 말씀만이 라도 고맙습니다. ○○님, 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사용자의 짓궂음은 물론에도 애플 스마트폰 인공지능 운영체제 ‘시리’(Siri)는 재치 있게 문자로 응답한다. 전화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대신 음성으로 누군가에 전화할 걸도록 할 수 있고, 오늘 날씨를 물어보면 즉각 해당 지역 기상 예보를 화면에 띄운다.

영화 ‘그녀’(Her)에서 아내와 별거 중인 남자 주인공(대필 작가)은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이해해 주는 인공지능 운영체제 ‘사만다’에게 연정을 품는다. 또 영화 ‘아이언 맨’의 ‘자비스’는 주인공의 음성 명령에 따라 실시간으로 정보를 취합해 적절하게 제공한다. 두 영화에 등장하는 ‘AI 비서’는 인간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연인이나 집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하지만 영화에서 본 ‘AI 비서’가 이

미 실생활 속에, 스마트폰에 일부나마 구현되고 있는 것을 처음 봤을 때는 깜짝 놀랐다. 스스로 학습하며 진화하는 인공지능이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까, 무척 궁금하다. 그것이 인간에게 유용한 ‘비서’가 될지, 아니면 인간 위에 군림하려 하는 ‘독재자’가 될지 현재로서 알 수 없다.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올해 자신과 회사의 화두는 인공지능”이라며 “이 세상의 구실을 물어보면 즉각 해당 지역 기상 예보를 화면에 띄운다. 물론 이러한 정도는 영화 속에 나오는 ‘인공지능(AI) 비서’ 역할에 비하면 약하다.”

프로 바둑 기사 이세돌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알파고’(Alpha Go) 간의 세기적인 반상(盤上) 대결(9~15일)이 펼쳐진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성인 103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6.3%는 이세돌 9단, 31.1%는 알파고의 우세를 예상했다.

앞으로 인공지능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이번 반상 대결의 승패와 관계없이 지구상 인간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은 분명하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인공지능(AI) 비서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